

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

- “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”, 관세청이 지키겠습니다 -

- 캄보디아 등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마약 공급국가와 합동단속 작전 실시
- 여행자·특송·국제우편 등 마약 밀반입 경로별 적발 사각지대 해소
- 국내외 기관의 마약사범, 밀수정보 등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·활용

□ 관세청은 '25. 12. 5.(금) 10:3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'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.

-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마약단속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공조 성과와 함께,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“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”을 발표했다.

< '25년 제5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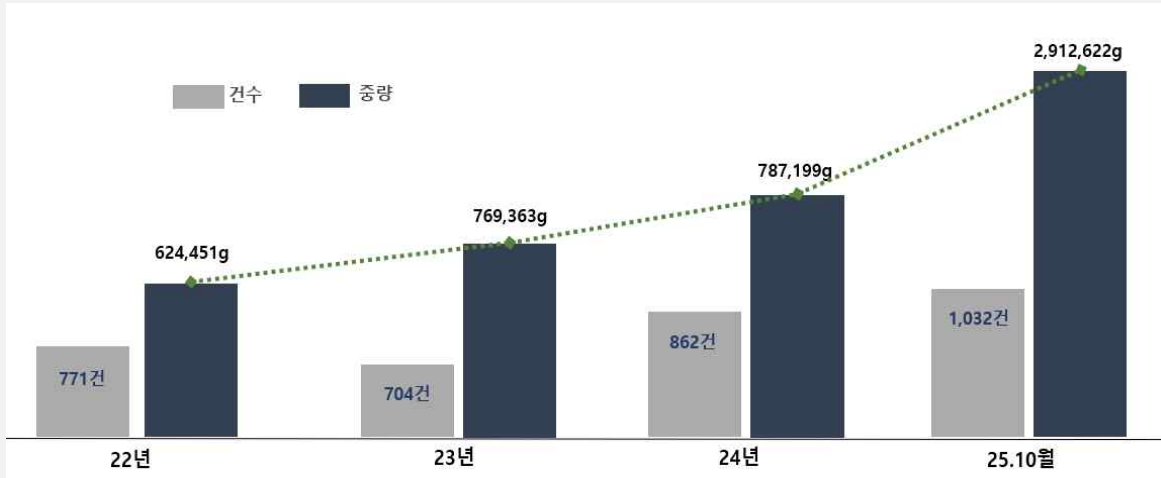
- [시간/장소] '25. 12. 5.(금) 10:30 ~ 11:00 / 서울세관 대회의실
- [참 석 자] 본청 7명(청장, 차장, 조사국장, 국제조사과장, 통관정책과장, 관세국경감시과장, 전자상거래통관과장) 및 세관 조사·통관 부서장 13명 등, 총 20명
- [주요내용] 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 최근 성과
② 마약단속 종합대책 및 실행방안 등 논의

□ 관세청은 '25년 10월말 기준 총 1,032건, 2,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.

-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%, 중량은 384%가 증가한 수치로,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.

* ('21) 1,054건, 1,272kg → ('22) 771건, 624kg → ('23) 704건, 769kg → ('24) 862건, 787kg → ('25.10월) **1,032건, 2,913kg**

※ 연도별 마약단속 현황



○ 마약류 적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

- (출발국가별) 상반기에 페루·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되었으나,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,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.
- (품목별)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,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,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이 증가했다.

※ 품목별 마약단속 현황

(단위: 건, g)

구 분	22년		23년		24년		25.10월		전년대비 증감(%)	
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
필로폰	120	261,888	155	437,662	153	492,533	98	267,966	△26	△23
코카인	8	152	17	11,343	7	67,600	8	2,302,489	33	3,622
헤로인	1	5	2	1,362	0	0	0	0	-	-
대마	284	93,093	212	143,442	221	53,481	275	102,310	49	108
신종마약*	480	266,758	430	171,621	515	167,495	618	228,310	43	67
기타**	12	2,555	39	3,933	146	6,090	213	11,547	97	115
합계***	905	624,451	855	769,363	1,042	787,199	1,212	2,912,622	41	384

* (신종마약)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(ex 케타민, MDMA, LSD 등)

** (기타) 코데인, 모르핀, 옥시코돈, 히드로코돈, 디페녹실레이트 등

***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

- (경로별) 여행자의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,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, 중량이 감소했다.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.

※ 경로별 마약단속 현황

(단위: 건, g)

구 분	22년		23년		24년		25.10월		전년대비 증감(%)	
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	건수	중량
항공여행자	112	36,155	177	148,099	198	139,687	505	269,184	208	162
해상여행자	0	0	0	0	1	81	1	106	0	31
국제우편	460	361,286	329	327,307	420	189,930	253	109,209	△30	△32
특송화물	197	225,776	193	274,681	235	391,774	268	226,419	50	△18
기타*	2	1,234	5	19,276	8	65,727	5	2,307,704	△29	3,638
합계	771	624,451	704	769,363	862	787,199	1,032	2,912,622	45	384

* 수출입화물, 무역선, 공(空)컨테이너, 선원, 반입경로 미상 등

1.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 합동단속 성과_ “마약판 코리안 데스크” 구축

- 관세청의 최근 마약류 국제 합동작전 성과를 살펴보면,
 - 관세청은 올해 태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미국,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고,
 - 내년에는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, 라오스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 등 총 10개국*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하여 “마약판 코리안 데스크”를 구축할 계획이다.

* 상기 10개국은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 적발의 건수 기준 70%, 중량 기준 83% 차지('24년 기준)

■ (국제 합동단속 작전 의의)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하여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·선별하고 집중검사하여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우리 마약단속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중의 마약 차단망을 구축. 일명 “마약판 코리안 데스크”

- 특히, 최근 보이스피싱,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, 내년 1월에는 한-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,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.

- 동시에, 라오스,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.
-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.

II. 마약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

1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

- ① (정보입수)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*(기존 4개 → 6개 기관)와 민간에서 여행자·특송·원료물질 등 경로별·품목별 정보**를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한다.

* (기존) 법무부·외교부·대검·과기부 마약사범 → (개선) 국방부 군 마약사범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 추가
 ** 유럽연합(EU)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(PNR), 원료물질 제조정보 입수 등

- ② (정보활용)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, 모든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*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 우범 여행자·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.

* (기존) 반입경로별 적발정보를 별도 관리, 해당 분야에서만 적용 → (개선) 내외부 적발 및 분석 정보를 통합관리·활용하여 여행자·특송·우편 등 모든 경로에 공통 적용

2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

- ① (여행자) 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(Landing 125, 인천공항 T1 → 전체)하고,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*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. 또한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도 확대**한다.

* (기존) 물품·운송수단 등 일반적 검사권한 → (개선)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 명확화
 ** (기존) 여객터미널 기준 日 12회 → (개선) 여객터미널 기준 日 16회, 33% ↑

- ② (특송·국제우편)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·운영하고 적정 판독시간(7초 이상)을 보장하는 엑스레이(X-Ray) 집중 판독제*를 시행한다.

* (기존) 물류흐름 고려 3초 이내 판독 → (개선) 마약검사 전담 라인 설치 및 고경력자 중심 집중 판독

- ③ (일반 수입화물)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*를 실시하고, 부산·인천·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(NICE팀**)을 설치하여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.

* (기존) 1차 마약 등 위험화물 검사 → (개선) 수입검사 시 2차 마약검사를 추가

** NICE팀(Narcotics Intelligence & Coordination Enforcement, 마약 전담 특별검사팀) 설치

- ④ (이중화 판독) 인공지능(AI) 엑스레이(X-Ray)를 활용하여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·검사하고,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-Ray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·검사하는 이중 엑스레이(X-Ray) 판독 시스템*을 구축한다.

* (기존) 엑스레이(X-Ray) 판독 > 이상 無 > 반출 → (개선) 인공지능(AI) 판독 > 엑스레이(X-Ray) 판독 > 반출

- ⑤ (선박) 대규모 선박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*하고 우범선박**은 선내·선저 정밀검사(수중드론 활용)를 실시한다.

* 속초항은 배치 완료('25.7월~, 2두), 부산항·울산항은 추가 배치 예정

** 통합항만감시시스템(IN-POSS) 항적정보를 활용하여 비정상 이동, 우범항구 경유, 선박 자동식별장치 차단 여부 등으로 우범선박 선별

- ⑥ (공항만 출입자 등)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 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검사한다. 아울러, 출입차량은 공항만공사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출입시 검색을 강화한다.

* 하선자 명단을 제출받고 우범국궤 선박의 선원 등 하선 시 집중검사

- ⑦ (감시 사각지대)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, 마약 원료 물질 등은 국정원, 미(美) DEA(마약단속국)·HSI(국토안보수사국)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하여 모니터링과 단속*을 강화한다.

* (환적화물) 환적 컨테이너 집중검사 기간 운영, Sea&Air 환적화물 출항 전 개장검사 실시 등 (원료물질) 우범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리만분광기를 활용한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위장수출 방지

③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

- ① (국제 합동단속)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(기존 5개국 → 10개국)을 확대*하여,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한다.

* '22년태국 → '23년 추가 베트남·네덜란드 → '24년 추가 말련·미국 → '26년 예정 캄보디아·독일·리오스·캐나다·프랑스

- 아울러, 국제 통제배달 국가를 확대하여 해외 마약 공급 조직부터 국내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일망타진한다.
- '26년에는 UNODC(유엔마약범죄사무소), UNINCB(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), INTERPOL(국제형사경찰기구)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한다.

* (기존)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(RILO AP), 유럽연합(EU) 부패방지청 → (개선) 유엔마약 범죄사무소(UNODC), 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(UNINCB), 국제형사경찰기구(INTERPOL) 협력 추가

- ② (쌍방향 단속) 특송·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(우범 발송인·송장번호·주소 등)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,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.

* (기존) 국내 수취인 중심으로 단속 → (개선) 해외 불법 공급자까지 원점 타격

4 단속 인프라 확대

- ① (조직·인력)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, 위조상품,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·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*한다.

* (기존) 면세초과, 위조상품 등 전반적인 검사 → (개선) 마약적발 전담검사 조직 편성 운용

- ② (장비·시스템)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*와 엑스레이(X-Ray) 동시구현시스템**을 확대하고 자체 연구개발(R&D)로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인공지능(AI) 엑스레이(X-Ray)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다.

* (밀리미터파) 현재 16대 → '25년+2 18대 → '26년+15 33대 / (리만분광기) 현재 19대 → '25년+4 23대 → '26년+5 28대 / (이온스캐너) 현재 99대 → '25년+8 107대 → '26년+5 112대

** (개념) 물품정보와 X-Ray 영상을 동시 표출하여 판독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(기존) 인천공항 T1 설치 → (개선) 인천공항 T2, 지방공항 확대 설치

- ③ (검사센터 등)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*,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, 국제 이산화물 검사시설 확충, 엑스레이(X-Ray) 판독 훈련센터 신설,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·개편** 등 마약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한다.

* 구분	기 존	개 선
① 세관 검사라인	▶ 우정본 우편물 분류 우선	▶ 세관의 마약검사 중심 전용라인 ▶ 3개 라인으로 확대(통상기준) ▶ 통합판독실 복수 판독 ▶ 전용 검사실 마련(면적 5배 ↑) ▶ 탐지구간 2배, 휴게공간 마련
② 검사 설비 규모	▶ 1개 라인 운영(통상기준)	
③ 엑스레이(X-Ray) 판독	▶ 개별 엑스레이(X-Ray) 부스와 단수판독	
④ 마약 검사공간	▶ 전용 검사공간 부재	
⑤ 탐지견 탐지구간	▶ 탐지구간 5m, 전용공간 부재	

** 훈련동·건사동 시설 증축('28) : 탐지견 확대 양성(98두 → 150두)

⑤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

- ① (상시 점검체계) 마약류 적발·수사·국제공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“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”를 출범하여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수사 정책,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.
- ② (전문성 강화) 통관검사, 수사, 마약류 분석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내에 맞춤형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, 중앙관세분석소에 마약류 전담 분석팀을 설치하여 해외 반입되는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*도 확대한다.
*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 합성마약(메스칼린 유사체)의 화학 구조 세계 최초 규명(25.2월) 인천공항세관은 암페타민 계열 등 총 5종의 신종마약류 확인(25) →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

⑥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

- 앞서 준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과 더불어, 마약단속 일련의 활동(연간)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하여 관세청의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.
-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,
-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으며,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,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.
 - 이와 함께 이번 발표하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“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”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당부했다.
- 관세청은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,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.

별첨. 마약단속 종합대책 1부.
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원 (042-481-7702)



정책
목표

"**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**"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

- ◆ 관세청은 관세행정 **전 분야**에서
그 간의 단속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**종합대책**을 마련하여
「**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**」이라는 관세행정 소임을 완수

6대 추진 과제

1.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

- ① 마약정보 입수 확대
- ② 정보관리와 활용체계 고도화

2.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

- ① 마약차단 최우선 통관검사
- ② 적발 추세를 반영한
경로별·품목별 기획단속 실시
- ③ 마약류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

3.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

- ①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
- ② 국내 마약사범과 함께
해외 마약 공급자까지
쌍방향(듀얼) 단속
- ③ 국내 단속기관과 공조

4. 단속 인프라 확대

- ① 마약 전담조직과 인력
- ② 첨단 검색장비와
시스템 확대
- ③ 마약검사 전용 시설 및
전문가·탐지견 양성
훈련센터 구축

5.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

- ①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
위원회 등 상시 점검
체계 구축
- ② 마약 적발·수사·분석 등
역량 제고

6.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